

상수원 안정성 확보 '총력'

용담댐 등 4개 광역상수원에 지킴이 116명 투입 지역주민 중심 수질오염행위 감시·정화활동 모바일 활용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범 운영

전북도는 옥정호, 용담댐, 동화댐, 부안댐 4개 광역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상수원의 안정성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지역주민들을 상수원 지킴이로 채용하여 수질오염 행위 등 환경감시 및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6개 시군에 9억7500만원(도비 683, 시군비 292)의 예산을 투입 시군별로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16명을 채용했으며, 채용된 이들은 4월

부터 1일 6시간씩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광역상수원 지킴이 활동으로 상수원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1000건 이상 오염행위 감시·계도와 2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지킴이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녹조 및 고라니 사체 발견 등으로 일부 감시활동에 대한 보고의 한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복무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모바일 복무관리 시스템이란 지킴이들에게 GPS가 연결된 핸드폰을 지급하고, 녹조 발생, 수질오염, 불법행위 등 발견 시 관찰기관에 사진 및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이번에 도입한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광역상수원의 오염행위, 관리상태 실시간 보고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수질관리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올해에 빨리 찾아온 폭염·폭우를 대비하여 광역상수원 녹조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류 오염원 감시 및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올해 도입한 복무관리시스템 성과가 있는 경우 내년에는 4개 광역상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코레일-SRT-시설공단 통합으로 철도공공성 강화,대륙철도시대준비 철도하나로 전북지역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통합이 안전이다 철도 하나로!"

철도 하나로 전북지역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18일 전주역 광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 내일 감염병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전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북도 및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내일 도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모악홀에서 '2019년 전라북도 감염병 네트워크 세미나'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수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단 및 치료',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염내과 김진용 과장의 '의료관련감염병(CRE)의 이해 및 관리방안', 전라북도청 보건의료과 정돈명 역학조사관의 '홍역의 이해와 관리'이다. 세미나는 의사, 감염관리 실장 및 간호사 등 도내 의료기관종사자, 도 보건의료원, 시·군보건소(보건의료원)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도내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하여 도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http://jid.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북 선도기업 최고경영자 혁신살롱 성료... 기업간 교류의 장 펼쳐

전북도는 18일 전주아름다운컨벤션에서 선도기업 및 도약기업 최고경영자, 유관기관장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선도기업 최고경영자 혁신살롱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장인 대우전자부품(주) 서준교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특별강연인 '유쾌한 반란' 그리고 올해 선정된 선도기업 및 도약기업 39개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전북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논전장(주) ▲동서콘트롤(주) ▲(주)세움 ▲(주)보림테크 ▲에너지엔(주) ▲우성공업(주) ▲(주)다인스 ▲(주)에스모터스 ▲아이큐어(주) ▲시즈오카한성(주) ▲(주)하이솔 ▲전일목재산업(주) ▲(주)어드밴스드웨이브 ▲(주)코딩코리아 ▲(주)태평양 ▲엔에이치네트웍스(주) ▲대중년영농조합법인 ▲(주)원메디텍 ▲농업회사법인(유) 더일푸드 ▲(주)뉴텍 ▲수립산업(주) ▲천일제지(주) ▲(주)유남기공 ▲(유)송그린푸드 24개사이며, 기존 60개사를 포함하여 총 84개사가 전라북도

선도기업 리스트에 올랐다.

2010년부터 시행된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그동안 166개 기업이 선정되어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매출증가와 고용창출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선도기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새로이 선도기업 이진단계 기업육성 프로그램인 '도약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날 신규 도약기업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주)피치케이 ▲메타로보틱스(주) ▲(주)천년누리푸드 ▲(주)하다 ▲(주)에이피에스 ▲(주)리더산업 ▲(주)위너너지 ▲세화정공(주) ▲(주)나노솔루션 ▲(주)가온우드 ▲(주)유니캡 ▲(주)한국에이씨엔 ▲서우엠에스(주) ▲(주)디딤돌 ▲(주)휴먼드림 으로 15개사다.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의 핵심사업인 도약기업과 선도기업에 선정되면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 및 허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 동안 기술개발 지원

(R&D), 현장으로 기술해결, 마케팅, 컨설팅, 교육훈련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은 '있는 자리 홀트리기'의 저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특별강연을 통해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의 스토리를 공유하였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인 장관, 대학 총장까지 오르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의 지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본 행사에 참석한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새 정부에서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선도기업이 지역 경제성장,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도약기업이 잘 성장하여 선도기업에 진입하고 선도기업은 한국형 히든챔피언까지 쫓아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군산시, 재난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본격 시행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을 위한 시

민안전보험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건협 전북도회, 새만금 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외지업체에 편중된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8일 군산 아미도에 위치한 새만금 미래관

에서 새만금개발청 이준희 기반시설과장, 새만금개발사업 현장소장들과 함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태경 회장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이 오랜 침체로 고사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진행되는 새만금 사업마저 지역업체

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한 200만 전라북도민의 노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건설공사 참여업체 선정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조정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영태 기자

"미래의 건축문화 이끌어 갈 건축인을 찾습니다"

전북도, 건축문화상 작품 공모... 10월 10일~11일 접수

전북도는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해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작품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건축문화상 공모는 사용승인부문, 학생부문, 건축사진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용승인부문은 도내에 준공된 우수한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대상이며, 학생부문은 건축계획과 기술계획으로 출품하여 대학생의 창의

적 작품을 시상하게 되며, 건축사진 부문은 도내 건축물을 소재로 한 건축사진 작품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 까지이며, 접수된 작품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축문화상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onbuk.go.kr>), 도정정보-알림마당-공고(고시) 및 전라북도 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kira.kira.or.kr>), 알림

광장-전북건축문화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출품작품 중 심사를 거쳐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도지사상과 각 단체장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를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청 1층 로비와 전시실에서 가질 계획이다. 김양곤 도 주택건축과장은 "미래의 건축문화 이끌어 갈 건축인을 발굴하는 행사인 만큼 새로운 건축문화 창작에 뜻을 가진 건축인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이 더욱 더 도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